

전북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절실”

“심리적·정서적 안전망 구축 시급”

전북교사노조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너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 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전북교육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신고당하는 일 없어야”

전북교육청 “교사·학생 학습권 보호 위한 의견에 공감”

당시 교감선생님께서 학생의 무단조퇴를 제지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으며, 이런 상황이 그날 처음 발생했던 것도 아니다. 이후 학교에 방문한 학생 보호자는 도리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이를 두고, 학교가 지금까지 학생을 방관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판이다. 학교는, 교사는, 매일 매시간을 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기학생을 방관할 수 없는 구조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법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했다.

수 차례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치료 등을 권유했지만,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도 대체로 권고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 연계형 대안학교도 없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현재 시급한 것은 ‘등교’가 아닌 ‘치료’다. 해당 학생이 성숙한 성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심리검사와 치료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급 학생들의 피해 또한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배경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이다.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 수업방해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등 남몰래 할 수 없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정서적 학대)에 ‘학대의 목적으로 지속적·고의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끝으로 교사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

자라는 논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우리가 서고 싶은 교단은 세균네티클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장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인간대 인간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교사-학생-학부모간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임에 권한을, 권한에 책임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주A초사안 발생 직후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고, 이를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 기관 설립도 검토 중에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노조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의 많은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한 교육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 24명 모두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다”며 “전주시청과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총 상금 1100만원 규모 문학상 공모 나서

가람 이병기 청년 시 문학상
최명희 청년 소설 문학상 등
접수기간은 8월 12-31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공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8월 12~31일까지며,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다.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전북대신문사 편집국으로 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고기념 특집호(2024년 10월 25일 자 예정)에 발표된다. 특히 올해는 총 상금 규모를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나호 시인’ 가람 이병기와 ‘혼불’의 최명희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신문방송사 홈페이지(www.jobpresscenter.co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70-353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알파브라더스

알파파트너스와 협약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18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알파브라더스·㈜알파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과 ㈜알파파트너스 이철우 대표, 권의중 고문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평생교육 인제 양성을 위한 협력 △성인 학습자 맞춤형 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창업지원 및 창업컨설팅 제공 △평생교육 현장학습 협력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이다.

한편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인 ㈜알파브라더스는 마케팅 실행 계획부터 각 기업에 최적으로 필요한 실무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알파파트너스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장은성 기자

수상 안전사고 인명 피해 ‘제로화’

전북자치도교육청, 7-8월 ‘예방 집중 주간’ 운영

해경과 함께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 8월 9일까지

학생 발달단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자료 활용 교육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8월 각급 학교에서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집중주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 맞춤형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활성화, 체험·실기 중심의 수상 안전사고 대응 역량 함양, 수상안전 예방·관리 협력 체제 구축 및 문화 확산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군산·부안 해양 경찰서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8월 9일까지 초·중·고 51개교 4,63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연안 안전사고 및 물놀이 안전수칙,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기 및 타인 구조 체험교육 등을 교육한다.

이는 여름방학 기간 학생 물놀이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방학 전에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어 학생 발달단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및 전문 강사에 의한 안전교육, 부모 대상 수상 안전사고 예방 수칙 집중 안내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올해는 학교에서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합동점검을 통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겠다”면서 “수상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백일해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감시 모니터링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백일해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확산되고 있어 학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되는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발작성 기침, 콧물, 눈물 등 감기 증상이 1~2주 정도 나타나며, 확진되면 5일 정도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환자 발생 시 나이스를 통한 즉시 보고 △예방접종 누락자나 추가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권장 △방역물품 관리 및 정기적인 소독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 보건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백일해 확진 학생은 6월 17일 현재 15명이다.

특히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추가 방역 소독 및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서기 문예체전과과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는 상황이며, 전북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고3 담임교사 대상 수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수시 대비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보다 많은 교사들의 참석을 위해 같은 내용의 강의를 2회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과 변화한 올해 대입 진학에 대한 안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인 전주 조장익 교사가 ‘수시 대입상담프로그램 활용법’을, 인천 계산여고 송시우 교사가 ‘수시 상담을 앞둔 고3 담임교사를 위한 대입정보’를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외대 모집 인원 증원과 전공자유선택제 확대 도입 등으로 대입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학생의 성적과 지원 경향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의 정확하고 빠른

진학 정보 안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9월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학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입시가 외대 증원과 전공자유선택제 등으로 많이 달라진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와 진학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북교사노조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 검토중”

서거석 교육감, 교사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전북교육청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서 거석 교육감은 “적극 공감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재학률 향상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교직원 대상 ‘재학률 향상을 위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의 재학률 향상을 위해 학사경과자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학과(부) 별로 중도 이탈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자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교수학습지원센터 백재이 연구원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박혜영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의 △재학률·충원율 및 중도탈락률 현안 △중도탈락률 현안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재학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주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집중홍보 Day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9일 스타센터 일원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집중 홍보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저학년 대상 빌드업 프로젝트와 고학년 대상 점프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위한 직업 및 진로 탐색,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훈련 및 경력연계 등 학년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T 취업 서포터즈 재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라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내 장학금 연계 △진로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IT 취업 서포터즈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